

NK바이오, 항암효능 평가기술 이전계약

NK바이오(대표 성낙인·임영호)는 충북대 산학협력단과 자연살해세포(Natural Killer Cell: NK세포)를 이용한 항암면역 치료제의 항암효능 평가기술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술이전을 체결했다고 4월28일 발표했다.

NK바이오는 계약을 통해 한국인에게 자주 발병되는 호발암인 위암, 간암, 대장암, 유방암, 자궁경부암의 전 임상 항암효능 평가에 관한 모든 기술과 노하우를 획득하게 됐다.

NK세포를 활용한 주사제는 환자 자신의 혈액에서 채취한 NK세포를 체외배양을 통해 200배 이상 활성화한 다음 환자의 몸속에 다시 주입해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이다.

<화학저널 2008/04/28>